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방역점검반·대시민 홍보 강화 방역관리 총력

전주시, 내달 2일까지 특별방역점검기간... 재택치료TF팀 확대 운영 등 의료 대응체계도 구축

전주시, 시의회 심의 통과돼 이달 내로 공포·시행 예정 맘껏 떠들고 놀며 놀 권리 보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 신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지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생애·숲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 부모학교 등 전주시 야호 5대플랜과 다양한 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식당·카페·PC방 등 방역패스 예방접종 의무화 적용시설 확대 △출입자 수기명부 단독 사용 금지 △사적모임 8인 제한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역수칙

전주시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6일 동안 30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방역점검반과 재택치료TF팀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 기존보다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가동하고 국·소·구청장 책임 하에 방역 일일점검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로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는 21개조, 424명으로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최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식당·카페·PC방 등 방역패스 예방접종 의무화 적용시설 확대 △출입자 수기명부 단독 사용 금지 △사적모임 8인 제한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역수칙



전주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 기존보다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가동하고 국·소·구청장 책임 하에 방역 일일점검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검체라인을 확대, 재택치료TF팀을 3개팀, 21명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부터 시작모임은 비수도권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의 무효시설은 당초 유흥주점 등 5종 시설에서 식당·카페, PC방, 학원 등을 포함해 16종 시설로 확대돼 1주일 동안

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적용된다. 화산체육관과 실내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운영되지만, 수영장을 제외한 샤워실은 26일까지 2주간 운영되지 않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인중개사 실명제 본격 추진

무등록자 중개행위·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사전 예방 위해

전주시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는 전주시역 공인중개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먼저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중개,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지회, 덕진지회,

양 구청 등으로,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명찰제작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명사진이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소속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하며, 증명사진의 경우 KRAS 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등록된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에만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작 신청서 접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수시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국가정보포털(www.ns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 서포터즈 '전국화' 협약

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간호사 등 은퇴한 전문인력을 건강·방역일자리 등의 사업에 투입하는 전주시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고양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교육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총괄자문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의 전국화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통한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 공동 수행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은퇴자들이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전주시의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통합돌봄 서포터즈는 보건·의료, 복지·돌봄 분야 등 전문성 있는 은퇴인력을 △건강지킴이 활동 △자기결정권 교육 △통합돌봄 사업 홍보 △노노케어 모니터링 △동네돌봄이용센터 등 통합돌봄 거점 기관 업무지원 △(공통)방역지킴이 등 통합돌봄 사업의 틈새를 지원하는 데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54명이

참여했다.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96%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수혜자들 또한 93% 이상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특히 건강개선, 정서지원 등의 분야에서 92% 이상이 상당한 도움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드론축구 프로젝트 결과발표회 개최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지난 11일 중앙중·덕일중 학생 60여 명과 함께 '2021 드론축구 프로젝트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드론축구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축구 선수 양성을 위해 야호학교와 (사)대한드론축구협회의 협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 양 학교 학생

들로 구성된 총 5팀이 드론축구 친선 경기를 펼치며 그간 갖고 있던 실력들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학생들은 드론축구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소감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와 관련 드론축구 프로젝트는 △드론의 정의 및 역사, 주의사항, 비행 방법, 호버링 집중교육 △드론의 종류 및 활용 △단체비행 및 장애물 통과 연습 △드론축구의 정의, 룰, 스

카이직 조종법 △포지션별 조종 연습(수비, 공격수, 골잡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전주시 교육청소녀들과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적극성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